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39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사사기 6:33~8:28)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온 땅에 퍼졌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고, 미디안의 지배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실지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 위의 다른 곳은 웬일인지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지만
마당에 둔 양털은 뭔가 묵직해 보였어요.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서 양털을 꼭 쥐어짚더니
물이 주르륵!

그릇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흘러 나왔어요.
그러자, 놀란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외쳤어여.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는 양털을 보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3만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였거든요.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도 많구나.
이대로라면 너희가 미디안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니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난 사실... 좀 무서웠어...
아니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돌보아야 하는데
배바질 사람은 배바지라니.
나는 이 참에 그만 돌아가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나타났죠.

그수가, 이만 이천 명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남은 만 명으로 과연 미디안의
포악한 군대를 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갔어요.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자 갈증을 느끼던
군사들의 눈이 반짝 반짝거렸죠.

“야, 이게 얼마만의 시원한 물이야!
뭇들 하나? 당장 목을 축이지 않고!”

모든 군사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지금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거라.
누군가는 선 채로 손에 물을 담아 훔아 마시고 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물을 마시고 있다.
그 둘을 구분해서 양쪽에 세워 놓거라.”

“모두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기드온이 황급히 이스라엘 군사들을 둘로 구분했어.

그수를 세어보니 선 채로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삼백 명이었고, 나머지 구천칠백 명은
무릎을 꿇은 채 납작 엎드려 물을 마셨죠.

삼백 명과 구천칠백 명...
여러분이라면 전쟁을 앞두고 어느 쪽을 골랐을까요?

사람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 군사의 숫자는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단 삼백 명의 군사들만 있어도
그분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삼백 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에 맞서게 됐어요.
기드온은 군사들을 백 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 군사에게 나팔과 향아리를 들게 했죠.

향아리 속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삼백 명의 용사들은 살금살금
미디안 군대를 향해 산비탈을 내려갔어요.

미디안 진영에서는 보초를 서는 군인을 배배고는
다 자고 있었죠.

그리고 숨죽여 기회를 엿보던 기드온이 마침내 각 부대에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삼백 명의 용사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깨뜨렸죠!

우렁찬 나팔 소리에, 향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게다가 그 속에 있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자!

꿈아떨어져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큰불이라도 난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휴 귀 찢어지겠네 그만해! 그만!”

우왕좌왕, 허둥지둥 미디안의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서로에게 밟혀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자기편끼리
싸우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기드온과 삼백 용사는 대승을 거두었고
미디안은 이 전쟁으로 많은 군사들과
왕자들, 두 명의 왕을 잃었어요.

이제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죠.

고통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용맹한 기드온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나 제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릴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어때요, 기드온이 멋지게 보이나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알고 있던
기드온 마저도 나중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